

시장 및 정책동향

■ 2014년 12월 생산자물가는 전월 대비 0.9%, 전년동월 대비 2.0% 하락 (한국은행 1.19)

- 품목별로는 채소 및 과일 가격 상승으로 인해 농림수산품이 전월 대비 2.6% 상승하였으며, 석유 및 화학제품이 내리면서 공산품은 전월 대비 1.6%, 전력, 가스 및 수도는 전월 대비 0.1% 하락하였고, 서비스의 경우는 전월 대비 보합
- 특수분류별로는 식료품이 전월 대비 1.0%, 신선식품은 전월 대비 8.9%, IT는 전월 대비 0.1% 상승했으며, 에너지는 전월 대비 4.2%, 식료품 및 에너지 이외 품목은 전월 대비 0.7% 하락
-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.4%(전년동월 대비 3.2%), 총산출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.2%(전년동월 대비 2.4%) 하락

■ 은행권은 연체금리 조정계획안을 확정하고, 은행별로 전산개발 일정 등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연체금리(가산이율 등) 인하조치를 추진할 예정 (금융감독원, 1.21)

- 연체가산이율은 14개 은행이 연체구간별로 1%p 내외 인하를 추진할 예정
 - 다만, 타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연체가산이율이 낮은(연체구간별 6~8% 수준) 대구 등 3개 은행 및 중금리 대출잔액 비중이 여타 은행에 비해 높은 SC은행 등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
- 최대연체상한율에 대해 국민은행은 3%p, 우리, 신한 등 9개 은행은 2%p, 씨티 등 3개 은행은 1%p 내외로 인하를 추진할 예정
 - 다만, 현재 타 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기업, 부산, 농협은행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

■ 2014년 12월중 어음부도율은 0.17%로 크게 낮았던 전월(0.12%)보다 상승 (한국은행 1.22)

- 2014년중 어음부도율(0.19%)은 동양·STX 그룹 소속기업 등 기부도업체의 어음부도액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(0.14%)보다 상승
- 부도업체수는 67개로 전월(61개) 대비 6개 증가
- 신설법인수는 7,889개로 전월(6,647개)에 비해 1,242개 증가
 - 부도법인수에 대한 신설법인수의 배율은 167.9배로 전월(132.9배)보다 상승

■ 2014년 12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상승 (한국은행, 1.22)

- 수출물량지수는 석유·화학제품, 통신·영상·음향기기, 제1차 금속제품 등 공산품이 늘어 전년동월 대비 13.0% 상승
 - 수출금액지수는 제1차 금속제품, 통신·영상·음향기기 등이 늘어 전년동월 대비 4.4% 상승
- 수입물량지수는 천연가스, 원유 등 광산품과 전기·전자기기, 승용차 등 공산품이 늘어 전년동월 대비 11.0% 상승
 - 수입금액지수는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전년동월 대비 1.3% 하락
-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출가격에 비해 수입가격이 더 크게 내려 전년동월 대비 3.9% 상승(전월 대비 1.1% 상승)
 - 소득교역조건지수는 순상품교역조건이 개선되고 수출물량도 늘어 전년동월 대비 17.4% 상승

■ 2014년도 불공정거래 심리결과, 혐의통보사건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, 대상종목은 증가 (한국거래소, 1.23)

- '14년 불공정거래 혐의통보사건은 총 132건으로 전년 대비 29.8% 감소
 -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등 유관기관과의 쌍방향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불공정거래 근절정책 적극 수행으로 처벌 가능성이 높아져 불공정거래세력이 위축된 것이 주 요인
- 혐의통보 유형별로 보면 시세조종이 54건으로 가장 많았고, 미공개정보이용(50건), 보고의무 위반(14건), 부정거래(12건) 및 단기매매차익(2건) 순으로 나타남
- 다만, 대상종목은 289종목으로 전년 대비 33종목 증가
 - 증권방송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와 같이 다수의 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 발생에 기인

■ 2014년말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23.6%로 전년 대비 +7.7%p,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은 26.5%로 전년 대비 +7.8%p 상승 (금융감독원, 1.26)

- 고정금리대출은 주로 5년간 고정금리 적용후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대출과 5년마다 금리가 조정되는 대출을 중심으로 비중이 크게 확대
 - 은행별로는 SC 34%, 대구 33.2%, 하나 26.8% 순으로 고정금리대출 비중이 높음
 -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BIS 자기자본비율 제도 개선* 등 유인구조 마련과 은행권의 적극적 취급 등으로 실적이 크게 개선
 - 은행별로는 SC 40.7%, 광주 29.9% 순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이 높음
- * 주담대 위험가중치: (일반 주담대) 35%, (이자만내는 주담대) 50%, (10% 이상 상환하지 않고 만기·거치기간을 연장하는 일시상환·거치식 주담대) 70%